

벽지선택과 도배방법

(Wall Papering)

주생활부

주택은 벽에 둘러 싸여 있는 방을 몇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립이 된다. 즉 벽은 주택중에서도 제일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벽, 바닥, 천정의에 가구나 악세사리, 조명효과등 전체적인 조화를 연구 하는것이 필요 하지만 이 모든것을 매듭짓는 것은 벽이다.

오래되어서 허름벽, 더럽고 지저분한벽, 이러한 상태로 두고 좋은 가구를 아무리 바꾸었다해도 그 방의 분위기는 좋아 질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벽지는 이러한 벽을 끝맺음 하기위한 재료로서 널리 사용되어 있으며 손쉽게 갈아 붙일수 있고 부담도 적게, 무늬나 색으로써 여러가지 느낌을 만들수 있으므로 보급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보겠다.

(1) 색과 도안의 선택

방은 어떠한 분위기로 만들고 싶다는 주관하에서 재료를 선택함이 제일 필요하다. 호화스러운 느낌, 부드러운 느낌, 아름다운 느낌등 방의 용도에 따라 여러가지 희망이 생길 것이다.

색에 있어서는 색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즉 해가 잘 들지 않는 북향방이나 너무 넓어서 허전한 감을 주기 쉬운 방에는 난색제의 전진성과 수축성을 이용하고, 남향방이나 좁은방에는 한색제의 후진성과 팽창성을 이용한다.

최근의 벽지색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대체적으로 흐린 느낌이 많다. 오히려 순 백색이 환영 받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인것 같다. 백색자체는 강렬 하고 아름다울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뚜렷하게 살려 주기도하고 감싸주는 역할도 한다. 장식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이 백색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화려하고 큰 무늬는 양실에 어울리며, 적어도 5평 이상의 큰 실내가 아니면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크기에는 조촐하고 그다지 눈에 뚜렷하게 비치지 않는 무늬와 색이 가장 무난하다.

화려하고 큰 꽃 무늬등으로 방을 장식하는 사람은 꽃과 수목에 굽주린 심리적 표현 이라고 한다.

방의 종류에 따라 연구해 보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실은 가족의 화목과 즐거움을 주는 분위기와 동시에 안정감도 겸하게 되므로 부드럽고 은은한 색과 조촐한 도안등이 어울린다.

너무 흐린색은 가족이나 손님이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므로 더러움이 빨리 타게 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녹색, 자회색 등이 적당하나 언제든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여 선택함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응접실은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으로 색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응접실의 주조색으로는 기호도가 높은색 즉 대다수의 사람이 좋아하는 색을 사용해야 한다. 청록색과 녹색의 중간색은 90%이상의 사람들이 좋아 하는 색이다. 그러므로 약간 흐릿로운 분위기속에 위엄성도 섞이고 침착성도 엿보이도록 도안도 점잖은 것으로 선택한다.

서재는 색을 잘못 사용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다든가 공부에 흥미가 생기지 않든가 한다.

암색제의 선명한색을 대폭사용하는 것은 금하며 다른 점에 지장이 없으면 청색이나 녹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청색을 싫어한다든가, 자연광원이 북쪽에서만 들어오는 경우에는 청색이 적당하지 않다. 보통 무난한 색은 녹색계통이 무난하다. 천정은 되도록 백색이 좋다. 백색은 빛을 최대한으로 반사하기 때문에 방을 밝게 해 준다. 또 백색은 사용해도 심리적으로 반발을 일으키는 일은 없다. 계속해서 책을 읽는다든가 글을 쓰는 경우에는 눈이 피로해지므로 눈앞에 있는 종이나 책에서 때때로 다른곳으로 시선을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 흰종이를 보는 눈은 백색 또는 백색에 가까운색의 벽으로 옮겨도 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고해서 흰종이에서 컴컴한 벽면으로 옮겨도 휴식은 취해지지 않는다. 평장히 밝은 면에서 평장히 어두운면으로 눈을 왕복시키면 눈이 극도의 조절작용을 하게되며 이것을 몇번이나 계속하면 눈이 상하게 된다. 중간적인 명도색이 휴식을 주게 된다.

아동실은 유아인 경우 베이비-핑크, 베이비-부루등 애기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색으로 통일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 부드럽고 메리케이프한 미는 있어도 1세이하의 애기는 이러한 색을 볼수가 없다. 아이들은 눈에 번쩍 피이는 녹색이나 샷빨간색을 좋아한다. 赤에 대한 기호는 본능적인것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지만 애기는 다른색보다는 적색 장난감에 손을 내민다.

애기방은 애기의 건강과 행복을 유의해서 꾸민다. 건강을 위해서는 밝은방이 필요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되도록 많고 선명한 장난감이 요구된다. 청녹색 벽에 적색 애기장은 더러움도 별로 눈에 띄이지 않고 좋다. 황색이나 자청색 계통은 좋지 않다. 도안은 동물, 화초 붕어 등의 동물벽지나 옛날이야기 풍의 정경무늬 벽지를 벽 4면중 1면에 붙여주면 대단히 좋아 한다. 자잔한 데자인의 움직임은 도안이 전면을 차지 하면 자극이 너무나 크다 할 수 있다. 닭아 낼수있는 비닐벽지는 아동실에 가장 적격일 것이다.

몸도 마음도 풀수있는 사적인 방이라 할수있는 침실은 사용하는 사람만의 기호를 살릴수 있다.

백과 적을 혼합한 장미색, 또는 풍부한 핑크색은 고상하고 또한 아침 눈을 떴을 때 생기를 북돋아 준다. 창에서 수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녹색 벽지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침실에 일광이 전혀 비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황색의 벽지가 좋다. 단 너무 짙은 황색은 두통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흐린색으로 하고 커튼은 자색 또는 자청색으로 하면 모든 색이 산다.

식사는 우리생활에 늘 붙어 다닌다. 요리자재의 색, 식욕을 돋구는 환경의 색등 식욕과 색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홍색, 산딸기, 깨끗한 녹색, 밝은 茶색, 검은 茶색등은 식욕을 자극한다.

(2) 벽지의 종류

종래의 창호지류를 포함한 한(漢)지와 서양풍의 맛을 살린 양지가 있다.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종이로 된 필벽지이며 표면에凹凸이 있는 특필지(코-팅벽지)는 입체적이며 채색도 담백하고 우아한것이 많다. 물 걸레질 할 수 있는 비닐벽지는 실용적이면서도 외부에서의 습기를 막아 준다.

방음효과,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루-파(쑤세미를 이용)와 파이텍스는 큰 양식방에 어울린다. 한옥에는 고급품으로 비단벽지, 苦紙벽지, 籠仙紙가 어울리며 종이실과 비단실로 섞어 짠 絹絲벽지와 금·은·창호지등을 바탕으로 짠 갈포벽지도 민속적인 맛이 있어 좋다.

(참고)

벽 지 품 명	벽지가격(평당)	벽 지 품 명	벽지가격(평당)	벽 지 품 명	벽지가격(평당)
비 단 벽 지	1,350원	루 - 파	2,500원	특 필 지	170원
P Y T E X	1,600원	비 닐	380~480원	갈 - 포	300~650원

※ 벽지의 평수계산은 실제의 평수에서 한옥은 2할 가산, 양옥은 1할 가산 하여야 한다
(도안맞춤과 여가리 처리로 인하여)

벽지를 바르는데 사용되는 풀은 밀가루풀로서 밀가루 600g에 물 3.5ℓ 정도로 완전히 식은것을 코로이드 상태보다 약간 묽게 해서 가능하면 가운데 바를 것은 좀 얇은 것으로, 가장이에 바를 것은 진한 것으로 나누어 준비 한다.

붙일 벽면의 우물두물 한데나 상한 곳을 손질해서 평편하게 한다. 베니아판이 제일 잘 붙지만 판과판 사이의 작은 싸포로 곱게 문지른다. 또 오래된 현 관벽이면 벌어진 짚에 밥풀과 고온톱밥을 섞어 잘 익여가지고 곱게 메꾼 다음 초배를 해 준다. 못이 나와 있는 곳은 녹물이 벽지에 배어 나오지 않도록 녹 방지 칠을 해 준다. 초배지(100~180 원 특초배지 1매당 15 원)에 풀을 칠해서 완전히 초배를 한 뒤 도배를 시작한다.

벽지를 펴서 겹치게 되는 한쪽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벽 길이에 맞추어 재단한다. 이 경

우 입체 무늬 벽지는 풀칠 한 뒤 벽에 붙이게 되면 2m에 약 1.5~2cm정도, 기타 종이류는 5~7mm쯤 늘어 나므로 유의 해야 하며 잇는 짝이 창 쪽을 향하도록 해서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도안은 물론 맞추어야 하며, 바를때 상부를 우선 꼭 맞추고 중앙은 솔로 누르고 빨리 중앙에서 사방으로 공기를 밀어내는것 같이 쓸면서 바른다. 가운데가 약간 깔려도 당황해서 늘리지 말고 마르는 것을 기다리면 깨끗이 된다. 하부나 구석에 남은것은 자를 대고 똑바로 잘려내고 자 끝이나 나무 끝으로 모퉁이를 눌러 끝막음을 한다. 어느 벽지나 표면에 풀이 붙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지만 폰드를 섞어 붙이는(풀 3, 폰드 1의 배합) 비닐벽지 등은 이것이 겉에 붙으면 화학작용을 일으켜 색이 검게 변하므로 특히 주의 해야 한다.

(상명여자 사범대학 이숙임교수)

〈알 림〉

1. 대한 가정학회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로 연락해 주시며는 입회용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회원으로 새로운 소식과 학회지 9호 3권에 실릴만한 뉴스, 학술논문, 여성들에게 계몽될수 있는 자료가 있으며는 12월 15일까지 본 가정학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38-8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전화 93-8253 92-5375 교환 78번

총 무 임 원 자